

# 강진서 정체불명 케이블 수개월째 방치

### 인근 주민들, 고압전류 흐르는 전선(?) 불안감 KT “주변 도로공사 전주 4개 철거 때문” 해명

“케이블선이 전주가 아닌 나무가지와 가로등에 매달린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까지 우려됩니다.”

KT가 관리하는 케이블선이 노면과 하천 등지에 그대로 방치돼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7일 오전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상저 마을 도로변.

인근 동네 주민 한 모씨(50)가 도로 옆을 따라 땅위에 길게 늘어선 케이블 선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전신주에서 땅 바닥으로 내려온 케이블 선은 풀숲과 도로, 하천을 따라

방치돼 있었다. 케이블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중간 중간 끈으로 나무, 가로등 위에 묶어 둔게 보였다.

전주위에 설치되거나 지중화로 땅에 매설돼야 할 광케이블이 맨땅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케이블이 수개월째 방치되자 주민들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건 아닌지, 통신이나 유선TV케이블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노면에 노출돼 있는 길이 150m 가량의 이 케이블은 KT 강진지점 관리하는 광케이블과 전화선으로 알려졌다.

주변 마을에 인터넷과 전화를 연결



강진의 한 마을에서 정체불명의 케이블이 수개월째 방치돼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난 2017년 2월에 시공됐다.

하지만 전신주 설치나 지하매설 등 케이블을 안전하게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 변 풀숲에 케이블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안전

을 위협하고 있다.

마을 주민 한 모씨는 “풀 숲에 감춰져 잘 보이지도 않는 케이블 때문에 밟아서 일하는 작업자가 행어나 선에 걸려 넘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땅에 매설되거나 전신주에 매달려 있어야 할 케

이블이 나무가지와 가로등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째 관리가 안된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지만 철거나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압전류가 흐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주체인 KT강진지점은 주변 정비사업과 공사로 인해 임시 가설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와 배수로 정비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주 4개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상황을 확인했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전주를 설치해 케이블을 원상복구시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6~28	흑산도	16~22
담양	16~29	구례	17~30
화순	17~28	곡성	16~30
영광	16~27	완도	18~28
함평	17~28	강진	17~29
무안	17~26	장흥	17~29
영암	16~29	해남	17~28
진도	17~26	고흥	17~29
신안	18~26	보성	16~29

일출 05:18 일몰 19:45  
월출 01:39 월몰 13:40

목포	만조 08:41 21:24	여수	만조 04:00 16:51
	간조 01:37 14:44		간조 10:38 22:38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사법농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하라” 시민단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가 치러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후 2시께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를 뒷받침했던 최악의 판결들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한 아합의 결과물이었다”며 같이 요구했다.

이어 “사법부는 지방의회 통합진보당의 원직 박탈 기회,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면서 “‘기본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저버린 채, 상고 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자행한 반민주·반인권적 판결들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역한 법관들은 단죄해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며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헌법 유린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과 사법부의 아합과 거래에 희생당한 피해 당사자들은 ‘법의 판결’이라는 위선적 정당성 아래 고통받고 있다”며 “비공개한 410개 문서를 각각 공개하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예총 등이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중찬 기자



전교조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광주고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것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심폐소생술로 환자 구해 탁구 동호회원들 60대 남성 응급처치

광주의 한 탁구 동호회원들이 평소 익힌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해 화제다.

7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2분께 북구 다목적체육관 내 탁구장에서 탁구를 하던 심모씨(62)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탁구동호회원 양진열씨(59)와 박종문씨(53)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4분간 교대로 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의 전기충격 등 응급처치 후 심씨는 호흡과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병인 심장

질환으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양씨는 1년에 2번씩 직무교육시간에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받아 왔다.

박씨는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송재민 구급담당은 “실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이뤄진다면 환자의 소생률을 2~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찬 기자

## 차량절도 CCTV로 생중계 범인 현장 검거

새벽 시간에 주차된 차량을 탈던 30대 남성이 범행장면이 CCTV를 통해 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생중계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 29분께 CCTV 관제요원이 덕연동 한중학교 정문 아래 큰 길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관제 요원은 이 남성이 차량 문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추적 관찰하다 112 상황실에 통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37)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33명과 경찰 3명이 1,500여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 “사법 행정 남용, 대책 마련해야”

### 광주지법, 수사의뢰 등 결론 못내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27명(전체 34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2가지 사항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결의안에서 “사법 행정권자의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참인 부장판사와는 달리 젊은 법관인 단독·배석판사들은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한 광주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37명은 이어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의안을 내지 않았다.

한편,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달 말 대국민 사과에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려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고광민 기자

# 2018년도 신규협력업체 모집

골드클래스(주)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발굴코자 협력사 신규모집을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등록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 가. 모집부문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체
- 2) 건축, 토목, 조경, 기전, 자재 등(첨부파일 참조)

#### 나. 자격조건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 2)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B 이상(이크레더블 외 신용평가 전문업체 동일등급 가능)
- 3) '17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40% 이내(자재업체 제외)
- 4) 건설업 영업기간 3년 이상

### 2. 등록기간 및 세부항목

- 가. 등록기간 : 연중상시  
나. 제출서류 : http://www.goldclass.co.kr (팝업창 확인)

### 3. 접수처

- 가. E-mail 접수 : iomeg2@hanmail.net(외주) didinii@naver.com(자재)  
나. 전화 : 070-4343-6350(외주-조달팀 장승권주임) 070-4343-6320(자재-조달팀 강신애과장)

# 2018년 신입 및 경력직 수시모집

### 1. 신입 및 경력직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구분	지역	인원	지원/우대사항
공사관리팀	건축(공사,공무)	경력	00명 -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시공업무 경력 유경험자 - 모집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신입:필수) - 초대졸이상 졸업자
	안전관리	신입	
	품질관리	경력	
고객지원팀	설비	의왕	0명 - 공동주택(아파트) A/S관리 경력자
	현장하자 관리직	경력	

2.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및 입사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분)
4.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lim9499@hanmail.net)  
- 접수기간 : 채용시 마감
5. 문의사항 : 총무업무팀 062-233-3999 (내선102)